영화 속에서 혁명과 저항의 역사를 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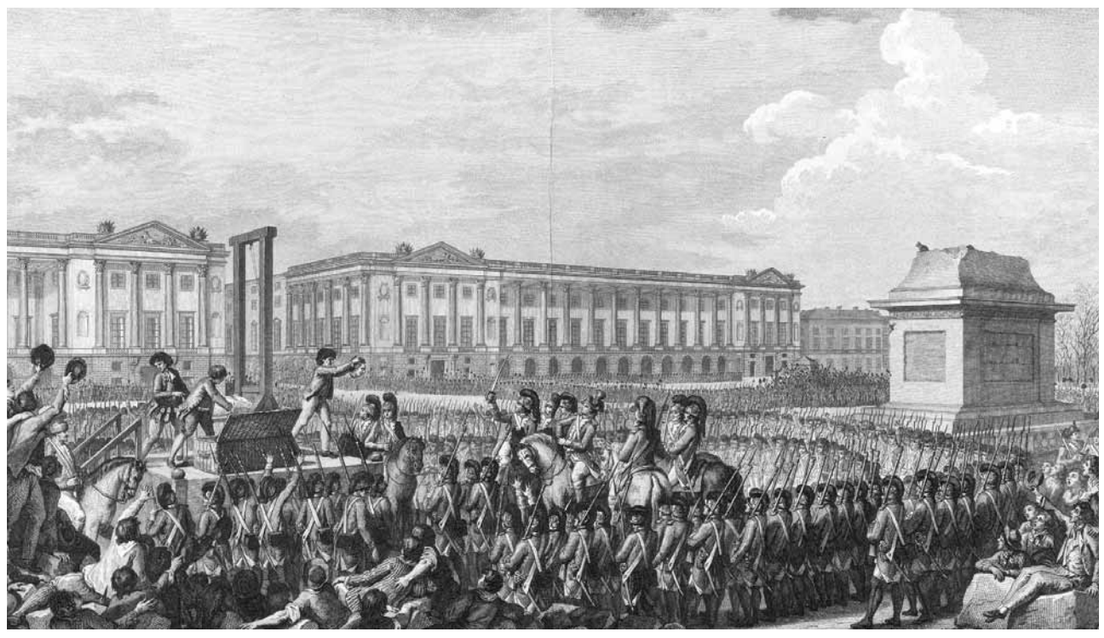
열여덟을 위한 세계 혁명사

오준호 지음

1789년 7월 14일, 성난 프랑스 파리 군중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부수고 들어갔다. 끝내 감옥이 함락되자 라 로슈푸코 추기경이 잠든 루이 16세를 깨웠다. "반란인가?" 왕이 되묻자 추기경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전하, 혁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귀족과 교회가 지배하는 낡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근대 자유주의 체제를 열어젖혔다. 자유·평등·박애는 새롭게 등장한 부르조아와 시민들의 이념이었다. 근대 시민혁명인 프랑스대혁명 여파는 유럽 각지로 들불처럼 번졌고, 영국 산업혁명과 함께 근대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오준호 작가의 '열여덟을 위한 세계 혁명사'는 친숙한 영화를 매개로 세계역사를 바꾼 굵직한 혁명과 저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들려준다. '영화를 들여다보며 세계혁명사를 함께 읽다'라는 부제를 단 이 책은 영화 '건국대업'(감독 황건신·2009년 작), '볼리바리안 혁명'(감독 마르셀로 안드라데·2004년 작)등 8편의 영화와 중국 혁명 및 베네수엘라 혁명, 러시아 혁명, 스페인 내전, 인도 독립투쟁, 베트남전 반대운동을 연결해 역사와 영화 양 측면에서 독자들의 지평을 넓혀준다. 영상의 힘은 활자매체보다 '그 때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1793년 1월 21일 프랑스 루이 16세는 루브르궁 인근 콩코르드 광장에서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다. 프랑스 혁명은 귀족·종교중심의 구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주의를 불러왔다.

'당통' '레즈' '간디' 등 8편의 영화로 혁명 소개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이 인류 진보의 과정이다"

영화 '당통'(감독 안제이 바이다·1982년 작)은 왕정을 뒤엎고 공화정을 세운 1794년 프랑스혁명 지도자 조르주 자크 당통과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의 대립을 통해 프랑스혁명의 빛과 그림자를 보여준다.

영화 '레즈'(감독 워렌 비티·1981년 작)는 미국 저널리스트 존 잭 리드와 연인 루이스 브라이언트를 중심으로 최초의 공산혁명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을, '랜드 앤 프리덤'(감독 캔 로치·1995년 작)은 스페인 공화정부를 돕기 위해 각국에서 달려온 반(反)파시즘 의용군 부대의 용맹과 좌절을 그리고 있다.

영화 '간디'(감독 리처드 아텐보로·1982년 작)는 인도 독립투쟁을 이끈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운동'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는다. 그의 불복종주의는 저항을 포기하고 청원이나 호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총칼에 의하지 않았을뿐 훨씬 용감하고 적극적인 저항 방식이었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저자는 역사속 혁명에 대해 알아야 할 이유에 대해 "역사를 개별 사건들로 보지 말고 긴 맥락으로 본다면 성공과 실패를 떠나 모든 혁명적 사건들은 인과의 사슬을 이루면서 '인류 진보'라는 장엄한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동학농민혁명과 4·19혁명을 정공법으로 다룬 한국 영화는 언제쯤 만들어질까? 저자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역사진보의 주역'이라고 말한다. 이 책을 읽는데서 그치지 않고 20세기 역사의 축약판이라 할 수 있는 해당영화 DVD를 구해 감상함으로써 독서의 재미가 배가(倍加)될 듯 싶다.

〈알렙·1만3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어쩌다 작아졌니? '대구' … 돌아와요 국민생선 '명태'

물고기가 왜?

김준 지음

오랫동안 해산물은 우리네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였다. 생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등어 반토막, 조기 한마리만 있으면 밥 한그릇은 순식간에 해치운다.

'물고기가 왜?-청소년을 위한 바다 인문학'은 출판사 '웃는돌고래'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생각하는 돌고래' 시리즈 첫번째 책이다.

이 책은 바다생물에 대한 고마움을 깨우쳐 주는 인문서다. 우리 민족이 즐겨 먹어왔지만 지금은 존재 자체가 귀해진 10가지 바다생물 이야기를 들려준다. 예전에는 평균 1m였지만 지금은 50㎝인 대구, 사람뿐 아니라 갈매기, 다른 물고기 등도 좋아하는 멸치, 동해에서 씨가 마른 명태 등이다. 생태, 포획방법을 비롯해 왜 귀해졌는지 등을 친근한 어조로 들려준다.

저자는 '슬로푸드' 개념을 바다 먹거리에도 적용해야한다고 역설한다. 우리나라에서 물고기의 가장 큰 천적은 어부가 아닌 낚시꾼이다. 낚시꾼들은 금어기를 지키지 않고 새끼물고기도 무차별적으로 잡는다고 지적했다. 이대로라면 약 50년 후에는 밥상에서 생선을 구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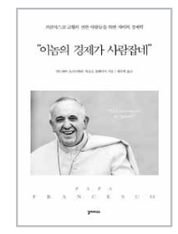
저자 김준씨는 광주전남연구원 문화관광연구실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며 20년이 넘도록 갯벌과 바다를 다닌 섬 전문가다. 그동안 '어떤 소금을 먹을까?', '한국어촌사회학', '섬 문화답사기' 등을 펴냈다.

사진이 아닌 그림을 넣은 것도 눈길을 끈다. 삽화작가 이장미씨의 솜씨다. 딱딱한 사진과 고딕체로 된 사진설명 대신 파스텔풍 그림과 손글씨는 책을 보는 즐거움을 더한다.

〈웃는돌고래·1만5000원〉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이놈의 경제가 사람잡네=프란치스코 교황의 자비의 경제관. 시대를 꿰뚫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과 행보를 통해 그가 진정으로 세상에 전해주고자 했던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교황은 먼저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가난한 이를 비롯한 소외된 모든 이와 연대하라고 한다. 또 빈곤, 실업, 전쟁처럼 세계를 불행으로 이끄는 구조적 악에 맞서 '군말 없이 실천하라'고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경제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비의 경제학이다. 〈갈라파고스·1만3000원〉

▲삶의 뿌리 인문학=역사적인 위인과 인문학이라는 신선한 조합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기업체, 관공서, 대학 등에서 활발한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다이애나 홍 한국독서경영연구원 원장은 언뜻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인물들의 일대기를 인문학이란 실로 엮는다. 덩샤오핑과 사마천, 이나모리와 공자, 마윈과 삼장법사, 스티브 잡스와 소크라테스 등이 그 주인공들이다. 그들은 고전을 즐겨 읽으며 인문학이라는 튼튼한 뿌리를 삶 속에 내렸다. 〈유아이북스·1만5000원〉

▲한국의 제3섹터=정부(제1섹터)와 시장(제2섹터) 사이의 대안적 영역을 가리키는 제3섹터는 오랜 기간 조합이나 비영리조직의 형태로 정부와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왔다. 관련 분야를 꾸준히 연구해온 저자들의 지난 연구 성과를 쉽게 정리한 책은 제3섹터의 개념부터 발전과정, 관련 법과 제도, 자원봉사활동과의 연관성, 기업사회공헌과의 연계, 지배구조상 개선점까지 종합적으로 다루며 내일을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삼성경제연구소·1만6000원〉

▲성 암브로시오 성당의 수녀들=로마 수도원에서 있었던 한 귀족 수녀에 대한 독살 음모는 종교재판이 시작된 계기가 된다. 하지만 종교재판소의 재판 기록은 바티칸의 비밀스러운 보관소로 영원히 사라져야만 했다. 그것도 고의로 잘못된 칸에 보관하고 있을 정도로 보다 확실히 숨겨야 했다. 1858년 로마의 성 암브로시오 성당 수녀원에서 도망쳐 나온 한 귀족 수녀가 밝힌 사제와 수녀 간의 믿기 어려운 스캔들과 이를 덮으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낱낱이 펼쳐진다. 〈시그마북스·2만5000원〉

▲김재철 평전=동원그룹, 한국투자금융지주 창업자 김재철 회장의 삶과 사업을 담은 평전. 가난한 농촌에서 11남매 중 맏이로 태어나 숙명처럼 주어졌던 가난에 맞서 자신과 가족, 사회와 나라의 살길을 찾아 몸부림쳤던 인간 김재철의 삶과 경영에 대한 기록이자 평가서다. 사업가로 입신하기 이전부터 기업가의 길, 사업 확장과 위기, 공적인 인물로서 김재철 등을 6부 16장으로 구성했다. 〈21세기북스·3만5000원〉

어린이 책

▲학습지 쌤통=일곱 살 다희가 학습지를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귀여운 에피소드를 담은 유아 생활동화. '네모 칸 괴물 학습지'와 다희 사이의 웃지 못할 사건 이야기는 오랫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작가가 만난 한 아이의 실제 경험담에서 구상하게 됐다. 다희를 비롯한 등장인물 캐릭터가 생생하게 살아 있다. 〈비룡소·7500원〉

▲구스범스 : 19 인간 사냥꾼 블랍=전 세계 32개국 어린이가 읽은 호러 걸작 '구스범스' 시리즈. 19권 '인간 사냥꾼 블랍' 편에는 영화 '구스범스'에서 괴짜 소설가 스타인을 꿀렁꿀렁 집어삼키며 최고조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던 괴물 블랍의 탄생 일화가 펼쳐진다. 〈고릴라박스·8500원〉

▲시간 부자가 된 키라=아이들에게 시간 관리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나아가 시간 부자로 살 수 있는 습관을 마련해 준다. 열두 살에 부자가 되고, 혼자 힘으로 미국 연수를 다녀왔지만 여전히 시간 관리가 잘 안 돼 지각을 하기 일쑤인 주인공 키라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간다. 〈을파소·1만3000원〉

▲이다음에 꼭 의사가 될 거야 외=가정의 울타리에서 더 넓은 사회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3~5세 유아들을 위한 맞춤책. 1권 '이다음에 꼭 의사가 될 거야', 2권 '친구야, 내일 또 만나', 3권 '할머니 집에 또 갈 테야', 4권 '물이 하나도 안 무서워'까지 성장하면서 한 번쯤 경험하는 유아기의 경험, 마음들이 벳시의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시공주니어·각 권 9500원〉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북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외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북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권(북성 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빼는날 화, 목, 토, 일
▶ 불빼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AI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떡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